

프로야구 전망대

'SUN의 아이들' 해뜰날은 언제



신종길 타율 0.111 ... 공격형 2번 '헛방망이'



박경태 첫경기서 3회 못버티고 5실점 강판

KIA, 주중 넥센 원정·주말 롯데 홈 '6연전'

에이스 윤석민 오늘·22일 2경기 등판 부담

'미운 오리 새끼' 박경태·신종길이 백조로 거듭날 수 있을까?

위기의 4월을 보내고 있는 KIA가 주중 넥센과의 원정 3연전에 이어 주말 롯데와의 홈 3연전을 치른다.

KIA는 지난주 삼성 그리고 LG를 상대로 3승을 챙기기는 했지만 타선은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답답한 승부를 이어갔다. 투수들은 볼을 남발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팀에 첫 승을 안겨줬던 에이스 윤석민의 어깨가 무겁다. 17일 넥센 강윤구와 선발 맞대결을 벌이는 윤석민은 22일 롯데전까지 책임져야 한다. 두 경기를 맡게 된 만큼 윤석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KIA의 4월 행보는 물론 앞으로의 팀 전체적인 운영에 중요한 키를 쥔 선수는 따로 있다. 좌완 박경태와 좌타자 신

종길이 그 주인공들이다. 두 선수는 스프링캠프에서부터 'SUN의 아이들'로 주목을 받았다.

양현종의 부상에 이어 라미레스까지 재활군이 되면서 박경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기동력'이 KIA의 신무기로 등장한 만큼 팀 최고의 발을 가진 신종길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다. 그러나 두 선수의 초반 성적은 처참하다.

12일 삼성전에서 선발 박경태는 3회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2와 3분의 1이닝 동안 2피안타 3볼넷 5실점을 기록하는 등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서 팀은 2-10으로 대패했다.

신종길은 7경기에서 27타수 3안타로 0.111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볼넷은 2개를 골라냈지만 삼진은 8개를 당했다. '공격형 2번 타자'로 출발했지만 계속된

■ 2012 프로야구 중진순위 (4월 16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7	6	1	0	0.857	0	3승
2 롯데	7	4	2	1	0.667	1.5	1승
3 LG	7	4	3	0	0.571	2.0	1승
4 두산	7	3	3	1	0.500	2.5	1패
5 삼성	7	3	4	0	0.429	3.0	1패
6 KIA	7	3	4	0	0.429	3.0	1패
7 넥센	7	3	4	0	0.429	3.0	1승
8 한화	7	1	6	0	0.143	5.0	3패

헛방망이질에 하위 타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선 감독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겠다"며 두 선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약속했다.

좌완, 파워와 기동력을 겸비한 좌타자. KIA에서는 반드시 키워야 할 재목이고 또 필요한 선수들이다.

박경태는 18일 넥센을 상대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박경태는 "밸런스도 좋지 못했고, 첫 등판이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렸다. 볼을 던지지 않아야겠다고 의식 한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타자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너무 신중하게 하러

다가 스스로 밀렸다"고 밝혔다.

박경태는 '직구'로 위기 탈출을 노리고 있다.

박경태는 "첫 등판에서 투심을 많이 던졌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 직구로 힘을 실겠다. 직구 피칭으로 다음 등판을 준비했다"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편하게 볼을 준다는 생각으로 던지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신종길 역시 '부담 버리기'로 마음을 다잡고 있다.

신종길은 "초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는데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 더 마음이 급해졌다. 잘해야겠다는 부담을 비우고 타석에 서겠다"고 말했다.

'미운 오리새끼'가 된 박경태·신종길의 비상여부가 KIA의 넥센·롯데전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한편 KIA는 이번 주 팀 기록에 도전한다. 통산 4번째 800세이브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고, 20루타를 더하면 프로야구 역사상 두 번째로 4만8000루타를 채우는 팀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스타 없는 광주 FC 잘나가는 이유

혼신의 '잇몸축구' 통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리그 각 구단은 대대적인 선수 영입을 통해 재단장을 끝냈다.

K리그 막내 광주 FC는 오히려 제주발 돈공세에 박병주·허재원 두 핵심 수비수를 뺏겼다. 복이·슈바 두 외국인 선수가 새로 가세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화된 셈이다.

하지만 광주는 그라운드에 돌풍을 일으키며 3승4무1패로 6위를 달리고 있다. 화려한 스타플레이어는 없지만 든든한 잇몸과 끈끈한 팀워크가 있다.

지난해 주장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던 장신 공격수 박기동이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K리그 최장신 복이가 성공적으로 한국무대에 안착하면서 제공권 싸움을 주도하고 있다.

공격형 미드필더 이승기가 부상으로 빠졌던 지난달 24일 부산과의 경기에서는 임선영이 스타팅으로 나서 팀의 선제골을 넣으며 2-1 승리에 앞장섰다. 임선영은 이날 부상투혼과 함께 프로 데뷔 골을 기록하면서 광주의 저력을 보여줬다.

빠른 스피드로 수비진을 뒤흔들던 공격수 김동성의 부상 공백에서는 '조사인볼트' 조우진이 스타가 됐다. 15일 전남과의 '엘로더비'에서 조우진은 후반 25분 임선영과 교체해 들어가 빠른 스피드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광주 공격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그리고 후반 31분 환상적인 킥으로 전남의 골망을



김은선

임선영

조우진

지 흔들면서 팀의 2-2 무승부에 수훈 선수가 됐다.

주양과울로가 4골2도움으로 견제를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드필더 김은선도 경기 시작 30초 만에 벼락골을 넣는 등 선수들의 고른 공세가 광주의 행진을 이끌고 있다.

박병주·허재원의 이탈 속에 이용의 부상까지 더해졌던 수비진도 우려와 달리 이상무다. 장신 수비수 유종현을 중심으로 '90뉴오' 임하람-김수범이 부쩍 자랐고, 정우인도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발 더 뛰어 팀의 승점을 지켜내는 혼신의 플레이에 주전 수비수 맹활약했던 이용이 오히려 도전자 입장이 됐다.

올 시즌 광주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베테랑 골키퍼 이정래도 15일 부상으로 빠진 주전 골키퍼 박호진을 대신해 전남전 골대를 지키며 승점을 보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광주의 힘은 더 커졌다.

경쟁이 바탕이 된 끈끈한 조직력, 스타플레이어가 없는 광주가 잘나가는 이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고양 원더스 퓨처스리그 첫 승

한화 7-5로 꺾어

국내 최초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가 퓨처스리그에서 첫 승을 기록했다.

고양은 15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한화 퓨처스 팀과의 경기에서 13안타를 때린 타선에 힘입어 7-5로 이겼다.

고양은 1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홍재용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1점포를 때려 분위기를 잡았다.

이후 3회초 강하승의 2점 홈런이 터졌고, 안태영과 조성원이 연타석 안타로 1점을 보

태 5-0으로 달아났다.

고양은 7-5로 앞선 9회말 투수 김상용이 무사 만루의 위기를 연출했지만 3타자를 연속 뜬공으로 돌려세워 첫 승리를 지켜냈다.

빠른 팀포의 투수 교체로 승리 요인으로 꼽은 김성근 고양 감독은 "어려운 상대에게 승리를 거둬 선수들에게 동기가 생긴 것 같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고양은 오는 19일 동국대, 21일 고려대, 25일 상무와 연습경기를 펼친 뒤 27일 SK 퓨처스 팀과 홈 개막 3연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런던올림픽 26~29일 총주서 열려

2012런던올림픽 조정 아시아예선대회가 26~29일 총주 탐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다.

16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한국, 일본, 인도 등 23개국, 210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한국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태국(18명), 이란(17명), 일본·대만(각 15명), 홍콩(14명), 인도(13명), 인도네시아

(12명), 베트남·카자흐스탄(각 10명) 순이다.

선수들은 남녀 싱글·더블스킬 4개 종목에서 17개의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실력을 겨루게 된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대회 개막식에서 로잉선수들과 조정무지킴이(너비벌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